

“가상성 ‘幻’을 ‘幻’ 없애는 방편 삼자”

불교평론, 7일 ‘디지털 문명시대와 불교’ 세미나



故 백남준 작 'TV부처'

최근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로 대변되는 환경변화는 한국불교의 현대화 및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불교평론〉이 9월 7일 만해축전 기념 세미나 ‘디지털 문명시대와 불교’에 앞서 발표한 자료집에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불교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제언들이 이어졌다.

범죄율 감소에 불교 수범수제 정신 도입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선정성과 폭력성’ 발표를 통해 불교의 수범수제 정신이 디지털 시대 범죄를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가 논문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형사범죄는 1990년과 비교해

248%, 2000년에 비해 58%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살인과 강간과 관련된 신종범죄는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는 상황이다.

허우성 경희대 교수는 이에 대해 “디지털 시대의 심각한 쾌락 추구와 가상세계까지 확장되며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예전에는 보지 못한 수많은 범죄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감각적 쾌락과 느낌에 대한 치중, 인간 자존감 상실, 가상현실과 현실에 대한 무분별 등으로 범죄가 증가한 측면이 크다”며 부처님 당시 출가공동체 형성도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 움직임이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는 공동체를 통해 인간 자존감 회복 및 사회적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이런 수범수제(隨範隨制) 정신을 사회에 퍼기 위해서는 불자들은 명상 등을 통해 스스로 자각을 줄이고 언행을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각 팽창 등 변화에 교리 재해석 필요

디지털 시대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이도 흠 한양대 교수는 불교교리를 비롯한 불교 사상의 전반적인 검토와 재해석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와 달리 전혀 다른 논리와 패러다임으로 전개 된다”며 “디지털 사회를 불교교리를 통해 해석하는 움직임과 불교교리를 디지털 사회에 맞게 해석하는 움직임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불교교리의 예로 사이버 공간의 가상성을 설명하는 불교의 ‘환’ 개념을 들었다.

이 교수는 “〈원각경〉에서는 ‘환’을 여의지 못하면 번각이 없다고 표현, 환을 방편으로 보라 말한다”며 “가상현실을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하는데부터 가상현실로 인

한 문제점은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 사회 구현에 불교의 참여사상 일조
석길암 금강대 교수는 ‘디지털 시대의 패러다임과 화엄연기론’ 주제 발표에서 참여의지를 통해 디지털 시대 평등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디지털 시대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쌍방향 소통 등으로 평등한 사회구조가 될 것이라 전망과 함께 그런 정보기술을 기성권력이 적극 이용해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있다”고 말했다.

석 교수는 “디지털 정보기술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현상에 대한 구성원 개인의 참여의지가 중요하다”며 〈화엄경〉에서 지향하는 화엄세계를 예시로 들었다.

화엄 세계관으로 쌍방향 소통을

사이버 공간을 포교 영역으로 확대

불교예술에 디지털 매체 적극 활용

석 교수는 “〈화엄경〉에서는 평등한 화엄 세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말하며 중생의 자각을 위해 사회현상에 적극 뛰어들어 참여자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석 교수는 “〈화엄경〉에서는 평등한 화엄 세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말하며 중생의 자각을 위해 사회현상에 적극 뛰어들어 참여자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불교가 인간 자존감 회복에 도움 주어야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디지털 문명의 매트릭스적 실존에 대한 불교적 해명’에 대한 논문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존재에 대한 철학으로 불교사상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불교의 연기론은 실재와 가상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디지털 사회에서 그 존재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형호 서강대 석좌교수도 “기존사회가 존재를 있는 그대로 믿

는 형이상학이라면 디지털로 대변되는 새로운 사회는 그 존재의 실존에 대한 의문이 팽배할 것”이라며 본래 성질을 인정하지 않고 그 표상을 문자방편으로 남긴 문자학이 기존 존재론을 대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불교는 이런 문자학의 대표 주자”라며 “너와 내가 차이가 있으며 항상 변화한다는 사교로 디지털 시대를 공존과 상생의 시대로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감각의 팽창, 포교에 활용해야

박수호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정보사회에서의 포교전략과 사이버 공간의 활용방안’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은 감각의 팽창에 대해 오히려 불교가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호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사이버공간을 적극 활용해 포교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이버 신행공간은 장애우나 노인 등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가능한 만큼 불교의 대중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박 교수는 사이버 공간의 활용에 대한 방안으로 △불교정보의 집적유통을 위한 DB역할, △의사소통 구조 △네트워크를 통한 불가공매체 건설 △종합적 신행공간 구축을 제시했다.

불교예술에 디지털 기법 도입

명법 스님은 ‘디지털 시대의 불교예술의 혁신’에서 “디지털 매체를 불상과 탱화와 같은 불교예술작품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도문화보다 수행문화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 등의 사찰에서는 탱화와 불상을 TV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명법 스님은 “과거 전통에 머물지 말고 법당, 불상 등 불교예술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감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 특히 젊은세대들이 불교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예술은 과거 전통에 머물지 말고 디지털 예술의 가능성에 주시해 그 체험을 확장시키는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며 방향을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심리치료, 문화콘텐츠 등 눈길

2012 가을 박사 11명, 금강·위덕·중앙승가대 배출 없어

2012년 가을 불교박사들이 배출돼 활발한 연구활동을 다짐했다.

중앙대에서는 동국대 7명(1902호 참조), 동방대학원대 2명 등 총 9명, 일반 대학은 서울대 1명, 고려대 1명 등 2명이다.

이번 상반기 박사과정에서는 중앙승가대를 비롯해 금강대, 위덕대, 서울불교대학원대 등 총 11명, 일반 대학은 서울대 1명, 고려대 1명 등 2명이다.

안향기 박사(서울대 대학원 종교학과)의 ‘유식불교의 언어관 연구’는 사회 활동을 통한 주관적인 체험 내용이 언어로 표현되는 과정을 ‘유식’이란 불교사상으로 풀어낸 논문이다.

안 박사는 언어주체로서의 ‘사회적 자아’와 그 자아들간의 관계, 인식대상과 언어의 관계, 언어와 사회적 자아간의 재영향 등 4가지 측면에서 조명했다. 안 박사는 언어주체인 사회적 자아가 알아야 하는 문화도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그 자아 사이의 소통을 사회화 과정으로 설명했다.

이윤수 박사(고려대 대학원 문화콘텐츠학)의 ‘연등축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적 특성’은 연등축제의 역사와 전개 과정을 살펴본 논문이다.

이 박사는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위시해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등 역사적 사료와 문인들이 남긴 기록 등을 통해 축제문화 콘텐츠로서 연등축제 위상을 고찰했다.

이 박사는 여기서 불교를 공통 문화유산으로 갖고 있는 아시아에서 연등축제가 어떻게 자국 전통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조명한다. 여기서 이 박사는 인도나

중국, 일본의 연등행사에서는 불교 요소가 사라졌음을 들고 한국의 연등축제가 신라, 고려시대 활발했던 불교문화를 대변하는 축제를 확인했다.

이윤수 박사(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학과)의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의 마음치유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 연구’는 한마음 공생실천과정에 참가한 사람들이 한마음 관법 수행과정을 자신의 갈등과 고통을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고찰한 논문이다.

이 박사는 한마음 공생실천과정에 참가했던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 박사는 공생실천과정에서 참가자들이 원인이 자신에게서 비롯됨을 인식함을 보여준다.

이현 스님(동국대 선학과의 ‘마조도일에 관한 연구-선과 교의 융성관계를 중심으로’)는 중국 선종 뿐만 아니라 한국 선종사에 큰 영향을 끼친 마조 스님을 조명한 논문이다.

이현 스님은 마조 스님의 ‘평상심도(平常心是道)’가 후대 조사선의 시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마조 스님이 공사상을 매개로 선사상을 펼쳤음을 밝혔다.

정성권 박사(동국대 미술사학과)의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 연구’는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에 대한 연구를 담은 논문으로 특히 중원 미특사지의 조성시기를 밝혔다.

정성권 박사는 11세기 말로 조성 추정돼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의 편년을 새로이 정한 가치가 있다. 정 박사의 연구는 궁에 정관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안성 기술리 석불입상의 양식 분석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2012 가을 불교 관련 박사논문 목록

이름	제 목	대학
안향기	유식불교의 언어관 연구	서울대
이윤수	연등축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적 특성	고려대
김경태	스리랑카 테라와디의 정통성 확립과정에 대한 비판적 연구	동국대
김지오	균여전 향가의 해독과 문법	동국대
윤미경	구마라집 법신관 연구	동국대
권선향	송대 이학의 체용론에 나타난 불교의 영향	동국대
이현 스님	마조도일에 관한 연구-선교론 중심으로	동국대
정성권	초의와 리규(利休)의 선대문화 비교연구	동국대
정성권	고려 건국기 석조미술 연구	동국대
이윤진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의 마음치유에 관한 현상학적 사례연구	동방대학원대
이영순	영성관법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일 사례연구	동방대학원대

디지털 대장경, 하나로 모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 고려대장경연구소 30일 협약 체결 국한문, 이미지, 영상 등 담아 2013년 시범서비스

국어와 한문, 사진과 영상을 모두 담은 통합디지털고려대장경 구축을 위해 대장경 연구의 양대 기관이 힘을 모은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과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8월 30일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에서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 및 통합대장경 구축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불교학술원은 산하 동국역경원이 한글 화자 작업을 하고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데이터베이스화 한 디지털한글대장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려대장경 연구소는

고려대장경 인경본 이미지 및 한문 원문텍스트가 열람 가능한 디지털고려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으로 고려대장경 인경본 이미지 및 원문텍스트 검색 엔진을 거쳐 한글대장경에 이를 반영해 통합디지털대장경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양기관의 통합디지털대장경은 2013년 초 일부 시범 서비스를 거쳐 2016년 일반에 전면 공개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원장 인환 스님은 “국한문 통합대장경은 대장경이 지니는 불



고려대장경연구소 소장 종림 스님(왼쪽)과 불교학술원 원장 인환 스님이 밝게 웃고 있다.

교기록유산으로서 원전적 가치를 확립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장경에 담겨진 다양한 내용과 가치를 공개하고 공

유함으로써 새로운 불교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불교생태계가 새롭게 싹트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익산 왕궁리, 제석사지 정비

2017년까지 단계별 진행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과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405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익산시(시장 이한수)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1989년도부터 시작된 발굴조사를 통해 궁장, 공방, 후원 등 왕궁 유적이 확인돼 백제 말기의 익산전 도성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익산 제석사지는 관세음유합기(觀世音應驗記?)일본의 관세음신앙 영험기록, 교토 청련원 소장)에 백제 무왕 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고 있는 백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불당적 성격의 락 사찰로 왕궁리 유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적이다. 종합정비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익산 제석사지 정경.

지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의 발굴조사, 건물지 정비에 비롯해 탐방로 조성, 조정, 편의시설 설치 등이 추진된다.

또 왕궁리 유적과 제석사지를 익산 미륵사지, 익산 토성 등 주변의 문화유산은 물론 익산의 대표 축제인 서동 축제 등의 행사와도 적극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북한 불교 문화재 사찰에서 홍보 해야”

최성은교수, 남북협력 학술대회서

최성은 덕성여대 미술사학과 교수(사진)는 8월 31일 통일부가 주최한 ‘통일시대를 위한 민족문화유산 남북협력’ 학술 심포지엄에서 ‘불교문화재 관련 대북교류의 과제’ 발표를 통해 북한 소재 불교문화재를 소개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원에서 진행된 이날 학술행사는 문화재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 문화교류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전문가, 학생 등 300명이 참석했다.

최 교수는 이날 불교문화재를 소개하며 남북학자들의 공동학술대회 및 연구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소개한 북한 소재 불교문화재 중 불교조각상은



105점, 탑과 석등 등 석조미술은 127점, 범종을 비롯한 금속공예는 43점, 회화는 22점으로 집계됐다.

최 교수는 “남북 공동 문화재 조사는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불교문화재들이 알려지거나 이미 알려진 문화재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각 종 박물관과 사찰에서 북한소재 문화재에 대한 소개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남북 박물관에서 소규모 교환전시회를 추진하는 것도 남북공동조사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와심리, 불교와심리 심포지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와심리연구소(원장 윤희조)는 9월 15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원에서 ‘명상과 무의식’을 주제로 제3회 불교와심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교수의 ‘불교의 구사학으로 풀어 본 무의식과 명상’ 발표에 이어 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뇌과학을 통해 바라본 명상의 효과’, 조육경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심신통합치유학과 교수의 ‘켄 윌버가 본 명상과 무의식’, 문용식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의 ‘요가명상에서 심층의식의 기능과 역할’, 이유경 분석심리학연구소 소장의 ‘적극적 명상(die aktive Imagination)에 관하여’ 등이 진행된다. (02)890-2854

노덕현 기자

불광연구원, 신도교육 학술연찬회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9월 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도교육의 현대적 방향과 내용’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연찬회에서는 김관태 사찰경영컨설팅 대표가 ‘한국불교 신도교육의 역사와 현황’을, 이창익 원광대 교수가 ‘타종교의 신도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신도교육의 현대

적 방향과 내용’을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이중 두 번째 주제인 ‘타종교의 신도교육의 내용과 방향’에서 이창익 원광대 연구교수는 천주교와 개신교 등 이웃종교에서 진행 중인 신도교육의 방향을 짚고 그 분야에 대한 분석과 불교신도교육과의 비교내용을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동대 불교학술원, 불교한문아카데미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인환)은 9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6주간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본관에서 역경인력 양성을 위한 불교한문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역주시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3개 기본과정 필수강좌와 2개 선택강좌, 아비달마구사론 특강이 개설된다. 필수강좌 경전반은 송광사 학감을 역임한 무예 스님(동국대 불교대학 박사)이 〈반야경〉 강좌를, 논서반은 불교학자 박해당 선생이 〈대승기신론〉 강좌를, 사서

반은 한국고전번역원 문집번역실장인 공근식 선생이 〈논어〉(대학) 강좌를 진행한다.

선택강좌는 서울대 규장각 양진석 선생이 〈초서천자문〉 강좌를, (계원필경집)을 번역한 이상현 선생이 〈고문진보〉를 각각 강의한다.

이번 학기부터 개설되는 〈아비달마구사론〉 특강에는 아비달마불교 권위자인 권오민 교수(경상대 철학과)가 초빙돼 구사론 중 첫 부분인 ‘계품’ 강좌를 매주 50일 개설행할 예정이다. (02)6713-5163

노덕현 기자